11-15-2026 주일 설교 메시지
금주의 묵상: 시편 91:1-16
본문말씀: 로마서 8:33-39
밀씀제목: <u>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받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</u>

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:

<u>"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첫째는 유대인에게요, 또한 헬라인에게로다.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나 기록된 바 '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' 함과 같으니라."(롬 1:16-17)</u>

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,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받은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:

<u>"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, 하나님의 선물이라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."(엡 2:8-9)</u>

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구원은 어떤 행위로 인해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.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구원은 유지되는 것입니다.

은혜로 받은 구원 안에 그리스도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 취소된 수 없는 것입니다.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:

<u>"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,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?"(히 9:13-14)</u>

그렇습니다!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 속에 죽은 행실로 인해 더럽혀진 양심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생명을 받은 양심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어떤 육신의 행위로 육신을 더럽힐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을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어떤 행위로든지 더럽혀진 육신은

회개를 통해 용서받아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.

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:

"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.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,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써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.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."(히 10:10-14)

마침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이 영원함에 대해 증거했습니다:

"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?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. 누가 정죄하리요?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.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.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?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? 가록된 바와 같으니 '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.'라고 하였느니라.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마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.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,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, 높음이나 깊음이나,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."(롬 8:33-39)

예수께서도 앞으로 자신을 믿어 구원받을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:

"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,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.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,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."(요 10:28-29)

아멘! 할렐루야!